

학생... 철회하라 학교... 학생위한 것

학과계열화 견해차로 협상결렬 합의서 이행 점검도 원칙만 확인

학교측과 학생의 대표자 협상이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 회의를 끝맺고나 유상학과 계열화 견해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되었다.

공영일 총장의 주재하에 진행된 이날 협상에서 학생측은 학과계열화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단행한 점 ▲현재 우리학교 교육역전성 시기상조라는 점을 들어

학과계열화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계열화 자체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단지 과정상의 문제만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히고 "학생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며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 회의를 결렬시켰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는 합의서 이행 점검, 행정, 학적개정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으

나 합의서 이행 점검 부분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여기서 양측은 ▲도서관의 공간은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학교측이 판단하여 배치한다 ▲도서관 앞 조정공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한다 ▲현재의 임시교문을 정식교문으로 하고 완공까지는 임시차원에서 합의한다 ▲소극장은 건설위원회에서 합의한 후 시공한다 ▲자연대를 우선순위로 증축한다 등으로 양측의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학생측은 합의서 불이행에 대한 학교측의 공개 사과와 다시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학교측은 합의서에 대해 "서로의 믿음이 없었던 불행했던 과거의 산물"이니 더 이상 합의서는 쓰지말자고 주장해서 의견전진을 보지 못했다.

행정과 단합대회

별대 행정학과 학생회는 오는 12월 12일 오후 1시에 단합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축구, 농구 등을 경기종목으로 하는 체육대회,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교수, 졸업생, 재학생이 모두 참가하는 '행정인의 밤'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박정미양 3개월만에 석방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이적죄로 불구속되었던 박정미(국문90) 양이 3차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구형받고 지난달 21일 풀려났다.

박정미양은 지난 6월14일 귀가하던 도중 이적죄로 불구속되었던 박정미 양의 변호인은 "유죄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을 믿지 못 하기 때문에 합

소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박양은 3개월이 넘는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구형될 때 앞으로 양심수 후회했음을 했고 심도 깊고 재판을 받기도 했다.

대한기계학회 세미나

대한기계학회는 지난 4일 오후1시 공과대 시청각실에서 5백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기계공학교육을 주제로 주제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동현(서울대 명예교수), 태운환(대우전자사장), 주덕영(삼광지원부 산인기술국장), 이태수(교육부 대학정책실장) 등이 기조연설을 했다.

지리과(야) 학술제

문리대 지리학과 야간부는 오는달부터 9월까지 '한국의 GIS(지리정보시스템)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와 사진전시를 개최한다.

오후 4시부터 문리대 지도실에서 열린 학술제 행사는 지도별로 살펴보면 오는 GIS학회가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요 및 목표, SPACE학회와 '배이' 비움지역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정부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소프트볼부 3위

체육대 소프트볼부는 10월21일부터 23일까지 경상도 리틀야구장에서 열린 전국대학 소프트볼대회를 숙려와의 준결승전에서 승리했으며, 22일 상지대와 준결승에서 패해 3위에 그쳤다.

이번 대회에서 국가대표선수인 김지은 유격수(체육 91)는 미기상을, 지은미투수(체육 93)는 타격상을 받았다.

의료원 간염 한방치료법 개발

경희대 의료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어려운 바이러스성 만성간염 치료에 한방 약물을 요법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4일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제1내과교신 김병은·유용정 교수는 지난 80년부터 바이러스성 만성간염을 앓으면서 간경변증으로 간경화증으로 전이까지 된 환자 1천여명에게 6~10개월간 한방 치료를 받게 한 결과 간염 정도를 표시하는 GOT와 GPT수치를 측정할 결과 약 70%의 환자들이 정상치로 떨어지는 등 간기능 개선 또는 회복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측정치의 편차성 확보를 위해 같은 환자에 대한 검사들 경희의료원과 다른 병

원에 동시에 의뢰했다.

지난 91년 만성 활동성 간염 진단을 받은 황모씨(35·여)는 93년 6월 간경변으로 전이돼 같은 해 7월 GOT는 50, GPT는 67에 이르렀으나 한약 약물을 치료 받고 6개월만에 GOT는 22, GPT는 24로 낮아져 지난 4월 치료를 중단했다.

또 86년 만성간염 진단을 받고 1년여간 치료를 받았으나 93년 9월 간경변증으로 전이됐던 황모씨(46)도 같은 해 12월부터 5개월간 한약 치료를 통해 각각 1480, 2432이던 GOT와 GPT가 18, 24로 낮아지는 탁월한 효과를 보았다.

이들 환자들은 특히 만성피로, 식욕부진, 근육통 등 간염에 따른 증세가 거의 없어지는 효과를 보였다.

충동문화 기념지부 결성 지부장에 조차송동문

우리학교 충동문화 기념지부 결성추진위원회는 지난 10월20일 대신 가이강당에서 충동문화 기념지부 결성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동성 충동문화위원장과 공영일 총장의 축사와 조차송 동문회장의 기념지부 결성추진위원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94년 5월초에 결성결의한 이래 지난 10월20일에 결성식을 가진 충동문화 기념지부는 이현수 국회의원, 강상재 국회의원, 양구철 경남대 사대학장, 김태환 전경원장등이 교문을 열고, 추진위원장을 조차송 동문회장이 맡고, 기념지부 결성식을 주관하는 조차송 동문회장이 축사를 하고, 사부지마를 정구일 황두리 회원 대표가 선언했으며, 그의 추진위원으로 구

학단협발족

대학원 학단협회의(학단협) 발족식이 지난 4일 오후 5시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신현(정치학 박사과정)씨가 회장으로 선출되고 장원희씨도 재직되었다. 학단협은 지난달 25일 학술단체 대표지회를 통하여 28개 학술단체가 가입을 결의하여 구성되었다.

학단협은 대학원내 연합 심포지엄 개최, 학술발표 연구 지원의 확대, 학술정보의 교류와 운영, 학술정보의 수집과 교류, 학술 및 정보 발간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95년도 등록금 15% 내외 인상 사립대총학장회 임시총회서

내년도 전국 사립대 총 등록금은 15% 내외로 인상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4일 오전11시부터 오후2시까지 열렸던 한국 사립대학총학장회의(회장 민병천)에서 총장 인사총회에서 밝혔다.

한편, 총학장들은 95학년도 국고보조금으로 학년과 마찬가지로 1천여원을 요구했으나 교육부에서 8백75여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이 액수는 4,5백억

20% 인상에 20.5%의 교육비 부담을 지는 의견을 표명해서 비롯되었다.

각 대학들은 이 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하여 지역별 대학 기회균등 지원금과 예산 일부가 모일 것을 통해 인상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총학장들은 95학년도 국고보조금으로 학년과 마찬가지로 1천여원을 요구했으나 교육부에서 8백75여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이 액수는 4,5백억

원액 확정요건에 연도보다 두 배가량이나 증가한 것이나 사립대학 총 연성비의 4%에 불과하다.

쿠데타적 사건의 쿠데타적 해결

◇...회합을 위해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분열을 막는 구국전사들에서 오리라 도다른 분열을 조장하셔라

사실인즉 12·12쿠데타를 회합(??) 차원에서 기소유출로 치부해서 결국엔 국외에서 난장판이 벌어진다.

나로서, 분열을 진정 막으시길 원한다면 그 근본적 원인부터 처리하심이 지당하지 않겠소.

◇...누구를 위하여 중을 물리나

고향골의 대동제는 막을

내렸지만, 문리대 공사는 언제쯤 끝낼 것인가

교수님 강의는 마치 소리에서 사라져가고 공사는 수업시간에 진행 중이나, 수목해지는 교수님의 목소리가 안타깝기만 하다.

학생을 위한 공사인지 공사를 위한 공사인지 노트수집의 의심스럽소.

◇...인간적대 먹여보자

이제 사립대학 먹여보자는 술로만 아래 화려한 번식을 했던 공대식당이 수변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는데.

특히 곡물은 간장과 풀 그 이상의 성분은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나.

아무리 식욕이 좋고 아무리 잘 먹여도 남학생들의 식욕이 사라지면 체력이 쇠약해지고 싶은것은 인지하지 못하고

◇...성수대교의 교문

낙엽이 흩날리는 서천공에 비오는 날이면 기이로 절한 표기가 펼쳐진다고는 노트수집이 아니라,

◇...무대개 전임로와 송차장 사이의 오르막 길이다.

급한 정사료에다 가족이 복지하면 같은 커다란 복지문에 이전에 위같은 사소한 문제가 우선권이 순서가 아닐런지...

비행을 마친하심이 성수대교의 교문은 아닐런지

◇...나의 분신 연상

될 수 있으면 아랫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절로 견고하고 있는 중 갑자기 시작되는 진동.

급히 교내 가까운 건물로 뛰어 들어가 불을 본 후 울러나 본 휴지절이에는 있어야 할 것이 보이지 않아 대체로는 단지 화열속의 연상일 뿐...

◇...화학적 의문지

복지하면 같은 커다란 복지문에 이전에 위같은 사소한 문제가 우선권이 순서가 아닐런지...

고내단신

여명 심포지움 개최

시사전문 동아리 '여명의 눈동자'는 오는 16일 오후 5시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94년 우리사회 현실 진단'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국가 경제정책과 미래를보기와 노동운동이 결여있고, 94년 주요사건으로 본 우리사회, 교육정책과 우리대학의 현실을 다루게 된다.

언론고시반 실원 모집

서울캠퍼스 언론고시반에서는 10기 신입실원을 모집한다. 우리학교 2, 3학년 학생들 희망하는 입실지원서와 함께 성적증명서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고 시험을 치르게 된다.

카오스 전시회

사범대 미교과 동아리, 카오스는 오는 10일까지 복지회관 전시실에서 복지회관 공간기공제 제2회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에서는 '세월', '한낮의 휴식', '무제' 등의 작품을 전시한다.

콤콤 소프트웨어 전시회

경희대학교 컴퓨터 연구회(COM-COM)는 제6회 창작 소프트웨어 전시회를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중앙도서관 3층 세미나실에서 갖는다.

학생들로 하여금 컴퓨터에 관한 인지도를 높이고, 컴퓨터와 보다 친숙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대학본부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각종화 관리프로그램과 게임, 미디어 등 17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소리산하 공연

수원캠퍼스 노래장소리 소리산하는 오는 10, 11일 오후 4시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가을학기 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은 '지하철 노조 파업을 통해서 본 노동해방의 제조법'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경영학과 학술제

사회대 경영학과는 오는 8일 오후 2시 제대 시청각실에서 제4회 경영학과 학술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생활문화 슬라이드'가 상영되고 '기업경영적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손것사랑회 수화발표회

수원캠퍼스 사회봉사동아리 손것사랑회는 오는 11월 5시 30분 공대 시청각실에서 제4회 수화발표회를 갖는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수화로 표현한 5곡의 노래와 뮤지컬 '백설공주' 공연이 있다.

행시반 실원 모집

정경대 행시반은 신입실원을 모집한다. 시험은 12월 오후 1시 정경대 401호 강의실에서 치를 예정이며, 시험 과목으로 1학년은 영어, 2학년은 영어, 민중, 한국사, 3·4학년은 건과목이다.

21세기를 향한 한일의 새로운 도전

한일 그룹은 인간지향, 첨단지향, 행동지향의 굳은 의지로 21세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일그룹

한일합성·국제상사·경남모직·동서석유화학·부곡중공업·한양건설·한양개발·남주개발·산남개발·한일리조트·진해화학·연남합성·한일레이징·한일투자금융·신라상호신용금고·한양재단·한양학원·한양과학기술원